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어요”

러시아 침공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는 몰도바 만민교회 소식.

‘선’ 시리즈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 하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미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주는 다·멜의 선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조건

믿음으로 응답받으려면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하고, 죄의 담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퇴행성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64호 2022년 3월 2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몰도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을 넘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 몰도바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아나 성도님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마음 다해 돕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난민이 국경을 넘어 저희 도시인 키쉬뇨프까지 왔습니다.

아나 성도님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60여 명의 피난민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 거하면서 그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나 성도님의 선행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슈퍼마켓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여권을 보여주면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식료품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코프 시에 폭탄 공격을 해서 민간 지역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은 피난을 결심해 자동차를 타고 무작정 서쪽 국경으로 가면서 안전하게 지킴 받도록 본교회에 기도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은 본교회 인터넷 등록 성도이며, 전에 당회장님의 기도로 사업터가 화재에서 지킴 받아 간증으로 영광 돌렸던 분들입니다.

본교회 손영락 장로님을 통해 저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몰도바 국경을 넘어오면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은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어 국경을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몰도바 만민교회는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을 위해 교회에 숙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분이 자신의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한 달 간 임대해 주겠다고 하셔서 안톤, 안젤라 성도님 가족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량도 많이 구입해 냉장고에 가득 채워 두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녕이 오도록 지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르 파바라누 선교사 올림



▲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는 몰도바 만민교회 성도들과 아나 성도(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니엘의 선(善)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 6:21~22)

유대 민족인 다니엘은 소년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히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행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큰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보기에 의로운 명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결여된 의는 온전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명에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 과정을 보면 그 마음과 고백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셨던 다니엘의 선은 무엇일까요?

1. 자신을 모함해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

다니엘은 바사 왕 다리오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보다 뛰어나 왕의 총애를 받았지요.

왕은 모든 일에 흠이 없는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궁지에 몰아넣고자 계락을 꾸미지요. 그들은 국사에 대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이나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율법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계락을 꾸밈니다.

곧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왕에게 제정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의 어인까지 짚어 절대 반복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가 모함하기 위해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능히 알 수 있었지요. 더구나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기에 얼마든지 왕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악한 자들의 꾀계를 알려 분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고하지도, 악한 무리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잠잠히 있었지요. 금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악한 자들의 계락을 왕에게 고한다면 그들이 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왕께 신임받는 것을 이용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이 생명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만일 상대에게 분명히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이는 선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만큼 상대에게 해가 되거나 그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들은 자연히 마음에서 걸려 잡니다. ‘이 말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거나 어떤 뜻을 꼭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선한 표현으로 돌려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해도 상대를 염려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자신은 상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선하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 주게 되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고자 합니다.

2. 민망한 입장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주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앙은 악한 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금

령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할 것을 알았기에 이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고 이 모습은 그들에게 쉽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왕은 그제야 그 금령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임을 깨닫지요. 그리고 심히 근심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단 6:14). 이처럼 왕이 머뭇거리자 악한 자들은 왕에게 나아가 왕이 세운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 신속히 규례대로 시행할 것을 종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명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위로합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왕에게 하나님을 심어 드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심정은 너무나 총애하는 신하를 지키지 못하고 사자 굴에 내어 줬기에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그날 밤, 왕은 밤이 다하도록 금식하고 기악을 그쳤으며 잠도 이루지 못했지요. 이튿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 굴에 가서 슬피 다니엘을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은 이미 생명을 잃어 그 시신마저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사자 밥이 되었어야 합니다. 왕도 다니엘이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른 것은 아니었지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 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요.

구구절절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선한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왕에게 서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월야 기도회 9:00 PM (매월/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월/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

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었지요.

“왕이여, 왕은 물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저를 죽음으로 내모셨습니까? 보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한 것을 이제야 아시겠나이까?” 하고 서러워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다니엘이 말했다면 왕은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자 굴에 던져진 후 왕이 얼마나 슬퍼했을까를 먼저 염려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왕에게 알려서 애통을 그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새벽같이 달려온 왕에게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며 왕을 안심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아뢰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다니엘과 같은 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가벼운 예로,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채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당장 좋지 않다면 어떻게 말하겠는지요?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거 보십시오. 제 말대로 하지 않더니 이렇게 일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며 핀잔을 주고 상대를 무안하게 할까요?

이 같은 말은 안 그래도 일이 잘못되어 마음이 무거운 상대방에게 더 큰 마음의 짐을 안겨 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안한 상대를 더욱 민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에게 누(累)가 되거나 상대를 무안하게 한다면 삼가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자연히 마음에서 제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지요.

교회나 직장, 가정에서 이처럼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이 곧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선대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함은 물론 죽음도 피해 갑니다. 혹여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해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 위해 잠시 허락된 과정일 뿐이지요.

사자 굴에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 “...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지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기쁘시게 해 드린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선을 사모해 날마다 더욱 선해지는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믿음으로 응답받으려면?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갈 수 없음으로 지붕을 뜯어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함은 물론, 금식이 주관되면 금식을 하고, 때론 철야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구제 등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를 발판 삼아 스스로 나올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최소한의 계명, 곧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지키는 행함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약 2:26)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사 59:1~2). 또한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받침대가 흔들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질병의 원인인 죄의 담이 먼저 헐어져야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막 2:5).

죄의 담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여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지식적인 믿음마저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니 결국 응답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혹여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 주시겠지’ 생각해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기억하지도 않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요일 1:7~9).

하나님께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들것에 누운 채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11).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 즉 영적인 믿음을 얹어주심으로 인해 응답이 임한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자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갔지요.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임하면 염려나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일시에 변화가 옵니다. 응답받았다는 확신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과 방법,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어려움이 오면 ‘믿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왜 안 되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바로 응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질병 치료는 물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퇴행성 허리 협착증 치료

방현초 권사 (60세, 3대대 15교구)

2021년 3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깅한 것이 무리가 되었나 싶어 대수롭게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석 달 후인 6월에는 걷기도 힘이 들었지요. 조금만 걸어도 발에서부터 마비가 오고, 10분 정도의 거리를 세 번은 쉬어가야 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퇴행성 허리 협착증이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일 수술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완화시켜야지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9월에 있을 은사 집회에 환자 접수를 해 기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집회 때 기도 받은 뒤 다리의 움직임이 좀 편해지기는 하였지만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가 응답받기에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궁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일이 있었지요.



제가 열세 살 때 친척분이 제 콧대가 많이 주저앉아 있다며 불법 시술을 해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불뉘러 시술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스물두 살 때쯤 코가 파랗게 멍이 든 것처럼 죽어가더니 구슬만 한 몽우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형외과에 가 보니 너무 오래돼 약물이 코의 모든 세포조직에 촘촘히 박혀서 긁을 수가 없다며, 코를 잘라내 남아 있는 약물을 긁어내고 몸의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떼어 코를 만드는 성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뒤 하나님을 의지해 설교 후 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꾸준히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의 몽우리가 작아지더니 아무 이상이 없게 되었는데, 서서히 치료받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고도 크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우친 저는 이를 놓고 회개하며, 12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면서는 첫 사랑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 시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에는 남아 있던 통증이 사라짐은 물론 서서 무슨 일을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고 땀 수도 있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

현연화 집사 (77세, 3대대 16교구)

저는 2007년 5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고통받던 무릎 관절염과 20년 넘는 허리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허리 통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창틀에 허리를 부딪쳤는데, 허리가 자꾸 아파오더니 갑자기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협착증에서 디스크로 옮겨갔으며 약물치료와 더불어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은사 집회 시 꼭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재발된 허리 통증에 대해 하나님께 지킴 받지 못한 이유를 깨우치고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당회장님께서 무언가를 굵어 담는 저를 보셨는지 사심, 욕심, 탐심을 버리라고 하였고, 또 한 번은 악한 감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날 꿈속에서는 이수진 목사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계를 가져가시면서 “불편하시죠?” 하시며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꾸 뒤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한 제 자신을 깨우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교구 랜선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통회자복이 나왔습니다. 지성전에서 다니엘절야(비대면)를 할 때에도 통회자복이 나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물 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 가족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니 너무나 죄송하였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들레는 마음, 판단 정죄하고 시샘하는 등 이런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성결되기만을 바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021년 9월 은사 집회가 열렸고, 저는 GCN방송을 통해 참석하였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코로 박하향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지요. 저는 ‘이것이 치료받은 건가?’ 생각하며 일어서서 걸어보고, 누워보며 엎드려 보고,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할렐루야!

이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 새벽과 낮, 저녁에 다니엘절야까지 하루 세 차례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산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